

제 57 호

에이-21



치유정원 '십자가의길 제VI처'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사회복지법인 성모의마을



새해

글 장은주

또다시 머리위로
태양이 떠오른다

한 해의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는 듯
마음 한켠에
아쉬움과 미련이 가득 몰려오고
때론 내일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차오른다

새해라는 말만 들어도 설레이고
희망과 사랑을 안고 오기에 기다려진다

새해에 무엇을 할까 고민도 해보았지만
답은 하나
건강하고 행복하고
늘 감사하며 지내는 것

살아오며 느낀 점
날 지탱해주는 것은
주위의 고마운 분들의 기도라는 것

희망이 밀려오는 새해가
기다려진다

CONTENTS

- | | |
|---|---|
| <p>03. 여는글
보듬어 주고 감사 할 수 있음에... / 남금숙 원장</p> <p>04. 일본여행
내 마음 속 수채화 / 최영현</p> <p>05. 사랑방
대천 바다의 추억</p> <p>06. 종사자 프로그램
실리평가는 감동이다! / 최상태</p> <p>08. 어울림
마리아반을 소개합니다</p> <p>10. 프로그램방
찌르고~맛보고~즐기고♪~♪ / 생활재활팀</p> | <p>12. 공연방
작지만 큰 꿈을 키우는 / 반곡초등학교</p> <p>13. 봉사방
엔젤인널스의 사랑을 싣고 / 충청대학교</p> <p>14. 사진첩
성모의마을 이모저모</p> <p>15. 봉사와 방문 감사합니다</p> <p>16. 후원 및 봉사자 현황</p> <p>18. 수입지출현황</p> <p>19. 성모의기사수녀회</p> |
|---|---|

여는글

보듬어 주고 감사 할 수 있음에...



남금숙 원장

† Maria

정유년(丁酉年)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새해”라는 말은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힘이 마음속에서 부터 솟아오르는 단어입니다.

언제나 말없이 낮은 곳에서 떠올라 다시 낮은 곳으로 임하는 해처럼 미더운 공동체가 되기를 하느님께 기도하며 은인 분들의 가정에도 밝게 빛나는 희망찬 신년이 되길 기원합니다.

한 해를 거듭할수록 거주 이용인들에게는 더 안정적이고 편안함을 주는 집으로 거듭나게 노력해야 함을 느낍니다. 얼마 전 우리 곁을 떠나 하늘나라로 간 거주인 정○○은 성모의마을을 우리집이라고 본가에 가서 자주 말했다고 어머니께서 들려주었을 때 한편으로는 뿌듯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들도록 노력하라는 말로 들렸습니다.

올 2017년 성모의마을 슬로건은 “행복한 나, 소중한 너”로 모든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행복하고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는 한 해가 되도록 서로를 격려 하는 해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풀장을 대여하여 짧은 기간이었지만 거주인들에게 신선한 추억을 가진 것도 의미 있었고, 직원들이 실리(감사)평가를 통해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거주시설의 어려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추억과 감사, 사례, 기쁨 등을 거주인들과 함께 만들어 갔고, 그 추억과 감사들이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에도 기능보강을 통해 거주인들과 직원들이 좀 더 편리하고 안락한 성모의 마을, 감사하고 사랑하는 공동체로 지역사회와 더불어 함께 하는 성모의 마을이 되도록 기도하고, 늘 가까이에서 멀리서 성모의마을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이 따사롭게 하느님의 축복이 비쳐지기를 바래 봅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입니다. (1테살5,18)

일본여행

내 마음 속 수채화



최영현
성모의마을 거주인



시설 내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있지만 여러 명이 함께 움직여 시 간적 제한이 많았다. 여행과 자유를 갈망하는 나에게 돌아오는 차안에서 늘 아쉬움이 있었다.

나이가 먹으면서 “내가 건강이 안 좋아 꼼짝도 못하고 누워만 있으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몇 해 전부터 들었다. 부모님께 내 생각을 이야기 했더니 비용은 지원해 줄테니 같이 동행할 사람이 있으면 갔다 오라는 혀락을 받고 프란체스카수녀님의 도움을 받아 일본여행을 계획하였다.

처음에는 여행사를 통해 가려고 했으나 장애인을 위한 차량섭외가 어려워 현지 코리아 가톨릭센터의 도움으로 호텔과 장애인차량 대여와 통역을 섭외해 주셨다. 난 그렇게 부모님과 성모의마을 황인범 선생님의 도움으로 여행지 선정과 비행기 티켓을 예매하면서 소소한 여행의 매력을 느끼고 희열을 느꼈다. 드디어 당일 날이 되어 공항 출발 전 원장님께 인사를 드리고 출발을 하였다. 공항에 도착하여 스스로 비행기 탑승이 어려워 선생님과 승무원의 도움으로 탑승을 하였다.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지만 이동시에 불편함과 일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다. 굳어진 내 몸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습에 동정과 안타까움이 뒤섞인 시선이었다.

일본 도착 후 가이드의 안내로 여행을 시작하였다. 기요미즈데라를 시작으로 후시미 이나리, 텐류지, 아라시야마 대나무숲, 교토타워 등 교토의 많은 관광명소를 관광하였다.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이 있다면 2층이 금으로 둘러있고 그 주위에 단풍들이 화려하여 그 모습이 장관이었던 긴카쿠지(금각사)와 10엔 동전에 그려져 있는 우지 보도인, 그리고 천년의 역사를 가진 사찰로 들어서기 전까지는 위태로워 보였지만 막상 들어서니 탁 트인 전망에 가슴까지 시원했던 기요미즈데라가 인상이 남는다. 한국과 달리 일본은 장애인을 보는 시각이 많이 다름을 느꼈다. 이동이 불편한 사람은 장애인 택시를 이용하고 내릴 때 휠체어 이동이 원활 하도록 잘 구비되어 있었다. 기요미즈데라는 산 정상에 위치해 있는데 오직 장애인 택시만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어서 수월하게 관광할 수 있었고, 텐류지는 자갈길로 전용휠체어를 타고 편히 관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모든 관광지가 이렇게 장애인을 위해 서비스 가이드라인이 준비되어 있어 한국과는 많이 달랐다. 보고, 듣고, 느낀 3박 4일 짧은 일정이 아쉬움도 있었지만 1년을 준비한 여행이라 많은 추억을 쌓고 내 자신이 뿐듯 했다.

성모의마을에 돌아와 지인들에게 일본여행기를 들려주며 추억을 읊어 보았다. 시설 내에서 지내던 삶과 자신의 힘으로 여행을 통해 밖의 삶을 내 눈으로 보며 느낀 점이 많다. 처음이 어렵지 두 번째는 쉬우니 다음번 여행도 계획해 보는 자신감과 나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도전 해보길 응원 한다.



사랑방

대천 바다의 추억

이○석

기다리고 기다리던 바다를 가게 되어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파란 바다를 보니 답답했던 속이 확 뚫리는 느낌이었습니다. 회를 먹는 것도 좋았지만 조개를 구워먹는 것도 너무너무 재미있었어요. 내년에도 꼭 다시 오고 싶어요. 저는 정말 바다가 좋아요.

황○영

바다는 그야말로 나에게는 추억의 장소다. 우리 부모님의 고향이기 때문이다. 기대를 안고 간 대천 바닷가는 기대 이상으로 나에게 소중한 여행이었다.

유○자

바다를 보니 답답했던 내마음이 후련했다. 가슴이 확 뚫린 기분까지 느껴서 너무 좋았다. 바다야~~우리 다시 보자 그리고 또 우리 고모랑 고모부 잘 지켜주길 빌게... 우리 또 보자. 안녕~~

정○숙

개별욕구지원 프로그램을 희망하는 거주인 3명 모두 대천 바다로 나들이 하고 싶다고 해 늦은 12월 대천해수욕장으로 향했다. 겨울 바다라서 추울까 염려스러웠지만 날씨도 좋고 바닷바람이 불지 않아 산책하기 좋았다. 가족들은 턱 트인 바다를 보니 마음이 뻥 트인 거 같아며 바다의 정취를 한껏 즐겼다. 백사장 근처까지 산책할 수 있는 도로가 되어있어 이동을 쉽게 할 수 있었으며 점심식사로 조개구이, 회, 칼국수 등 스페셜로 먹으면서 다양한 조개의 맛과 회를 푸짐하게 먹을 수 있어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다.

최○원

바다에서 부는 바람도 봄바람처럼 따뜻했고 한참을 그렇게 바다를 바라보면서 정말 거주인들이 바다를 참 좋아하는구나 생각이 들었다. 기회가 대면 내년 봄에도 맛있는 조개와 먹을거리가 있는 대천에 다시 한 번 왔으면 좋겠다고 누군가가 하는 말이 기억난다.

강○미

성모의마을 거주인들과 나들이 하는 날은 어릴 적 소풍날을 기다리듯 설레고 기대된다. 회가 먹고 싶다던 황○영씨, 바다가 보고 싶었던 유○자씨와 이○석씨는 파란 바다를 보며 환호성을 질렀고 너무너무 즐거워했다. 회도 조심스레 먹어보고 인심 좋은 주인 아주머니 덕분에 조개구이도 많이 먹었다. 거주인들이 좋아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덩달아 나도 행복해진다. 이런 기회가 자주 있으면, 더 많은 거주인들이 이런 기분을 느낄 수 있으면 얼마 나 좋을까 하는 바람을 가져보며 무사히 다녀올 수 있었음에 감사드린다.



종사자 프로그램

실리평가는 감동이다



최상태
생활재활교사

“이번 평가는 실리 평가로 하겠습니다!” 원장님의 발표가 나오자 여기저기에서

“실리 평가가 뭐야?”라는 말들이 흘러 나왔다. “왜?”, “모임을 세 번이나 한다고?”, “시간도 없는 데?” 평가하기 전 별써부터 불만 아닌 불만과 걱정 반이 섞여 나왔고 그렇게 걱정을 가슴속에 가득안고 제비뽑기로 조별 모임이 만들어 졌다.

모임을 하기 전 “추억” “감사” “사례” “희망” 네 가지의 실리평가 주제가 정해졌고 그 주제에 맞는

소주제를 정해 이야기를 나누기로 하였다.

내가 속해있는 G조의 첫 모임 때에는 약간의 어색함이 흐르는 가운데 어떤 방식으로 풀어 갈지고민하다 우선은 조 이름을 정하기로 하였고 고민 끝에 “G4” (애칭:쥐포)로 정하였다. 조이름을 정해놓고 쥐포라는 한마디에 누구라고 할 것 없이 웃음이 터져 나왔다.

《glad(기쁨).give(주다). gift(선물). group(그룹) 기쁜 선물을 주는 그룹이 되자》라는 앞자리 G를 따서 G4(쥐포)라는 이름을 정하게 되었다. G4 라고 조이름을 외칠 때마다 웃음과 함께 어색함이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사무실과 생활동 선생님들이 함께 이야기 하고 웃는 모습에서 “아! 이런 것인구나!”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모임의 회 차가 늘어나면서 조원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각 자 업무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건 나만의 생각은 아니었을 것이다.

두 번째 모임에서 “추억”, “사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성모의마을 거주인 분이 IPP프로그램을 통해 전화걸기 연습을 한 후 처음 집으



로 공중전화를 걸었을 때 부모님이 너무나 좋아하시고 감동 하셨다고 한다. 이 후 그 거주인 분이 전화 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어 혼자서 전화를 걸었다 전화 베튼을 잘 못 눌러 다른 집으로 전화를 걸었는데 자기 집인 줄 알고 “엄마” “엄마” 부르며 그리운 이름을 불렀다고 한다. 잘못 걸린 상대 방 쪽에서는 성모의마을로 전화를 하여 “제발 우리 집에 전화 좀 그만 하게 해 달라.” 는 부탁 아닌 부탁을 받았다고 발표한 조원이 있었다. 웃기기도 한 에피소드 였지만 한편으로는 애잔한 마음이 들기도 하였다.

바쁜 시간을 쪼개면서 만난 두 번, 세 번의 모임

을 통해 조원들의 마음속에 담겨있던 실리 평가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눈 녹듯이 사라져 갔다. 감사의 주제를 통해서 성모의마을 거주인들과 직원들에게 감사 할 일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고 바쁘다는 이유로 잊고 살았던 감사한 분들을 떠올리며 오랜 만에 안부 소식이라도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실리 평가 전체 발표를 앞두고 각 조 모임 선생님들의 모습에서 지금까지 보지 못한 열정을 보게 되었고, 이번 실리 평가를 통해 그 안에서, 웃음, 희망, 감사를 느끼고 같은 마음으로 호흡하고 있는 성모의마을 선생님이 있다는 것에 참으로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또한 그 일원으로서 오늘을 살고 있는 나 자신을 돌아보았고 더 기쁘게 일 할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멋지고 화려한 결과가 아니라 팀원들과 함께 한 시간 속, 같은 공간에서 같은 마음으로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었기에 즐거웠고, 감사한 시간이었다.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성모의마을 화이팅!



어울림

"마리아반을 소개합니다"



* 굿모닝 커피, 굿에프터눈 콜라 전○선씨

아침에 일어나 식당으로 오시면 무슨 큰일이 난거처럼 직원을 부르지요. 일하다 말고 부랴부랴 가보면 커피 타달라고 ㅠ..ㅠ 바쁜 일 마치면 타 드릴께요. 하고 방으로 가서 다른 일을 하고 있음 또 큰일이 난 듯 불러 대지요. 또 부랴 부랴 달려가 보면 커피 타달라고 ㅠ..ㅠ 이렇게 커피랑 함께 아침을 시작 하는 전○선씨, 여기저기 아픈 곳이 많다면 매일 꼭 잊지 않고 찾아가는 물리치료실, 물리치료를 마치고 되돌아오는 길 자판기 앞에서 또 한 번 큰소리가 나지요 이번에는 핫 초코와 콜라 또 한 번의 전쟁을 치르지요

요즘은 예뻐지기 위해서 저녁마다 하는 마스크팩! 마스크팩을 해주면 일단 예뻐지는 건 둘째, 조용해서 좋다. 우리 혜선씨 목소리가 너무 커서 성모의마을이 떠나 갈 것 같아요. 건강한 전○선씨 지금처럼 건강 유지 하려면 우리 커피랑 콜라 조금만 마셔요.

* 성모 기숙사생 정○연씨

금요일 오후 정○연씨는 가방을 챙니다. 핸드폰을 챙기고 충전기를 챙기고 약을 챙기고 의자에 앉아 시계를 봅니다. 오후 프로그램을 마치면 기다리던 이모부가 오시고 그럼 정○연씨는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며 엄지 척 최고를 날려주지요. 이모님이 정○연씨 옆으로 이사를 오셔서 우리 규연씨는 주말마다 이모님 댁으로 외박을 나간답니다.





* 빛을 찾아 떠나는 김○임씨

어둠은 싫어요 빛을 찾아 떠나는 우리 김○임씨 창가에 햇볕이 잘 드는 공간에는 어김없이 우리의 김○임씨가 있어요. 바닥을 구르며 바닥을 치며 햇볕을 만끽하는 중이랍니다. 밤에는요? 가끔 라운딩 할 때 김○임씨가 없어서 놀라셨죠? 복도 비상등을 찾아 복도에서 주무시는 경우도 종종 있어 선생님들을 당황하게 만들죠! 우리 김○임씨처럼 우리 모두 어둠보다는 빛을 쫓는 밝은 사람이 되었음 합니다.

* 전동타고 빨간 빼 들은 성○이 여사님

비켜라 비켜라 전동 나가신다. 난 직진 만해 그러니 알아서들
비켜~~ 우리 성여사는 전동을 타면 아무데나 다 갈수가 없어요
ㅠ..ㅠ 왜냐고요

직진만해요 전원을 켤 수가 없어요. 성○이씨 가세요 하고 보면
그 자리 아~~죄송해요 저희가 전원을 안 켜줬어요 일단 전원만
켜주면 우리 성여사는 승~~하고 사라집니다.

자판기에 커피를 빼려 가세요. 자판기 앞에서 기웃기웃 누가
나 좀 도와주세요. 부끄러워 말도 못하고 눈치만 보지요 자판기
앞에서 혹시 빨간 빼 든 성 여사님을 만나면 커피 한잔 부탁해요.
참, 성 여사님은 기사님들도 많아요. 성격 급한 정 기사, 유 기사,
김 기사 우리는 모두 성 여사님 기사들입니다. 많이 불러주세요.
오늘은 유 기사님과 함께



* 늦게 배운 도둑이 날 새는지 모르는 김○례씨

매일 텔레비전 리모콘과 사투를 벼리며 텔레비전 속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그녀가 텔레비전 리모콘을 놓았습니다. 선생님들의 눈을 피해 몰래 숨어서 하는 게임, 게임은 역시 숨어서 하는 게 제맛이죠! 어깨가 아프고 목이 아파도 오늘도 포기 할 수 없는 게임 오늘도 딱 걸린 김○례씨 우리 건강 생각해서 조금만 줄여요!

프로그램방

찌르고~맛보고~즐기고 ♪~♪

신나는 노래방 나들이

공동모금회지원사업으로 진행되는 노래교실에서 같고 닦은 실력, 논산시내 노래방에서 백두대낮에 땀이 흠뻑 젖도록 신나게 흔들고 목청껏 노래를 부르고 왔습니다. 성모의마을 노래방 반주기로 부르는 노래랑은 차원이 달라요. 반짝 반짝 천장 별빛도 흐르고 같이 간 가족들의 얼굴도 뽀샤시 한 게 노래방에서 하는 노래는 차원이 달라요!



대추축제

1년에 한번 연산 대추축제가 열리지요. 이번엔 성모의마을 대표로 윤○열씨와 박○룡씨가 노래자랑에 참가하셨어요~ 노래방에서 쓸으신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오셨답니다^^



이문세 콘서트

논산 공설운동장에서 가수 이문세씨의 공연이 있었습니다. 모처럼 기회에 다함께 신나게 콘서트를 즐기다 오셨어요... 야외무대라 살짝 추웠던 건 안 비밀..ㅋ



신나는 백화점 나들이

거주인 박○민씨와 함께 대전세이백화점 나들이를 했어요~ 재미있는 영화도 봤구요.. 그런데 이 남자 쇼핑을 좋아하는 남자 였어요 밥값도 안남기고 옷값으로 다 쓰신 박○민씨 즐거운 하루가 되셨길 바래요!!



하늘물빛정원 나들이

성모의마을 얼굴마담 임○수씨 와 장○주씨 하늘 물빛정원으로 나들이를 다녀오셨습니다. 맛있는 장어를 드시고 오셨다던데.. 힘은 어디다 쓰실려구요?....



전국노래자랑

전국~~~~노래자랑!!! 논산에 멋진 송해 선생님께서 다녀가셨습니다. 유난히 트로트를 좋아하는 성모의마을 가족들이 빠지는 건 말도 안 되겠죠? 노래자랑에 가서 홍진영씨와 배일호씨도 만나고 즐거운 시간을 즐기다 오셨습니다



논산복지박람회

논산시에서 주최하는 사회복지박람회에 다녀왔어요. 다양한 볼거리와 이곳저곳 체험을 즐기다보니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구요~



공연방

작지만 큰 꿈을 키우는

▶ 반곡초등학교 김상수 선생님

지난 11월 30일(수)에 반곡초등학교 친구들이 성모의마을을 방문하여 신나고 흥겨운 솜씨자랑의 시간을 펼쳤다.

반곡초등학교는 성모의 마을에 이웃한 양촌면 반곡리에 위치한 전교생 32명의 작은 농촌 학교이다. 규모는 작지만 지난 2015년에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지정한 행복나눔학교를 2년째 운영하면서 기존의 틀에 박힌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다양한 꿈과 끼를 키워나가기 위한 다채로운 체험학습과 특색있는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이 모두 행복한 '작지만 큰 꿈을 키우는' 학교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이날 공연은 1~2학년 10명의 친구들이 보여준 신나는 '트위스트 댄스'로 시작해서 '핸드벨 연주', '홍부와 놀부 연극', '방송 댄스 공연' 등이 펼쳐졌으며 함께 참여한 반곡초 '교사 우쿨렐레 연주단'의 감미로운 노래 공연도 이어졌다. 특히 마지막 순서로 꾸며진 '반곡 대합창 메들리'는 이날 참여한 약 40여명의 교육 가족이 모두 함께 참여하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정리했다. 모처럼 찾아준 귀여운 초등학생들의 흥겨운 시간에 많은 성모의 마을 가족들이 함께 웃고 즐기는 흥겨운 시간이 되었다.

평소 몸이 불편한 장애인의 모습이 조금은 낯설고 약간은 어색하게만 느껴졌는데 이날 공연의 시간을 통해 그러한 편견을 조금은 바로잡게 되었다는 어느 참여 학생의 소감처럼 짧은 1시간의 내용이 큰 울림으로 전해지는 의미 있는 교육활동 시간이 되었다.

내년에 더 재미있는 공연을 준비해서 꼭 다시 찾아오겠다는 약속을 남긴 반곡초 학생들의 귀여운 몸짓이 벌써부터 기다려지기만 한다.



봉사방

엔젤인널스의 사랑을 싣고 ~

▶ 충청대학교 간호학과 이윤희 학생

저희 충청대학교 간호학과 엔젤인널스 동아리는 하계 방학 때 성모의마을에서 숙박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계 봉사 때 느끼게 되었던 감사한 마음과 행복한 추억을 되새기고 싶어 이번 동계 방학에도 봉사활동을 계획하게 되었고 하계 때 보다 많은 동아리 인원들과 함께 성모의마을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하계 방학 때 성모의마을에 방문했을 때에는 어색하기도 하고 거주인분들께 어떻게 행동하여야 할지 걱정도 되고 긴장도 되었지만 기관의 분위기는 따뜻하고 감사함이 가득한 곳 이었습니다. 그런 행복한 기억과 추억들 덕분에 이제는 헤어지기 아쉬운 한 집에 사는 가족 같은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1박 2일이라는 짧은 시간 속에서 같이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며 몸이 조금 불편한 거주인분들을 배려해드릴 수 있는 마음을 배우게 되었고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간호사라는 직업에 한 발자국 더 가까워 질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선뜻 낯선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어주시고 봉사하는 동안 힘이 들까봐 저희들을 더 걱정해 주시는 거주인 분들의 따뜻한 마음이 이곳에서 생활한 1박2일을 더욱 빛나게 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또 거주인 분들을 도와드리고 말벗을 해드릴 때마다. 거짓 없는 마음으로 사람을 진실 되게 대해 주시는 모습에서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매일매일 감사하고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분들의 마음을 닮고 싶다는 생각마저 들게 하였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즐거운 시간들이였기에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이 아쉬웠지만 다음 만남을 기대해 보며 이번 봉사활동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만나는 날까지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런 감사한 마음을 느낄 수 있게 기회를 마련해주신 성모의마을 거주인과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성모의마을 이모저모



- | | |
|------------------|--------------------------|
| 01 직원교육 | 10 국립생태원 가을나들이 |
| 02 야외 이동식 풀장 | 11 거주인 소방교육 |
| 03 독립기념관 나들이 | 12 제국의아이들 계란 및 쌀 후원(드리미) |
| 04 성모농장 배추파종 | 13 직원교육 및 실리평가 |
| 05 제3회 떠안머리 축제 | 14 김장 |
| 06 조성모 쌀 후원(드리미) | 15 심폐소생술 교육 |
| 07 성모노래자랑 | 16 부모회 사업설명회 |
| 08 수덕사 가을나들이 | 17 '식사하셨어요' 방문 |
| 09 성모농장 배추수확 | |

봉사와 방문 감사합니다



01



02



03



04



05



06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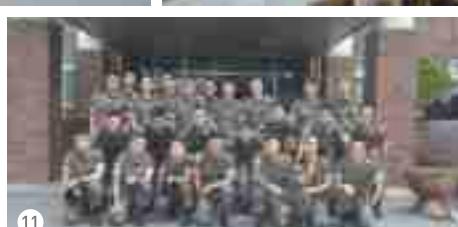
08



09



10



11



12



13



14



15



16

- 01 연세대학교 키비탄
- 02 충남공무원교육원
- 03 충남대학교 루카동아리
- 04 카리타스유통
- 05 한국타이어
- 06 배재대학교
- 07 삼성화재RC나누미
- 08 육군계룡사랑후원회
- 09 도룡동성당
- 10 상월면 바르게살기운동본부
- 11 육군 제2경비단
- 12 공동성당 영혼의 등대
- 13 한사랑 라이온스
- 14 메리워드윈드양상블
- 15 아무르합창단
- 16 상월부녀회



사랑을 주신분들입니다

성모의마을에서는 매월 넷째 주일에 후원자님을 위한
감사미사가 봉헌됩니다.

●●● 신규 후원자 : 첫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대형환경(주), 삼위일체성당, 강본임, 강춘달, 경현주, 고현진, 곽희수, 김낙윤, 김민자, 김민정, 김복영, 김봉희, 김연희, 김용관, 김세숙, 김태만, 김태영, 문홍섭, 박문형, 박성원, 박지영, 박해임, 빙창범, 선옥순, 송주연, 안미희, 안영수, 양경희, 윤영인, 이경숙, 이재숙, 정립동성당, 정용숙, 조준기, 천정수, 흥애련

●●● 후원금 (2016년 7월 1일 ~ 2016년 12월 31일 까지)

궁골식품, 금강전기, (주)대율, (주)대청공영, (주)동명스틸, 대림농장, 대전교구, 대전내동성당, 대전한사랑라이온스클럽, 대총1리주민, 부창동성당, 아이러브피플, 연산치과의원, 육군계룡사랑후원회, 이형섭복지재단, 일신주방, 정다운한의원, (주)진미식품, 하나병원유성근, 한국드라이베아링(주), (주)한남하이텍, 해군정보화기획실, (주)휴베나, 해피빈, 강대훈, 강덕일, 강명순, 강복순, 강승희, 강신균, 강애선, 강영미, 강영수, 강인숙, 강정미, 강정숙, 강자중, 강창희, 강호정, 고순덕, 고순화, 고연승, 고영숙, 고태성, 고효진, 곽동용, 곽명자, 곽성훈, 곽진구, 곽태희, 구교상, 구본관, 구자희, 구청자, 권기문, 권민경, 권순임, 권연택, 권재순, 길숙종, 김경미, 김경숙, 김경임, 김경진, 김광한, 김근태, 김기, 김기봉, 김기철, 김길자, 김남순, 김도희, 김동일, 김동현, 김동화, 김명숙, 김명식, 김명화, 김미경, 김미선, 김미숙, 김미애, 김미영, 김미현, 김민관, 김민호, 김병민, 김복수, 김복순, 김봉진, 김부덕, 김상현, 김석환, 김선야, 김선중, 김성남, 김성숙, 김성태, 김소영, 김수복, 김수자, 김수현, 김수희, 김숙, 김숙희, 김순예, 김순우, 김순우, 김양숙, 김양식, 김양임, 김양희, 김영규, 김영부, 김영분, 김영숙, 김영심, 김영옥, 김영임, 김영자, 김영택, 김영희, 김옥기, 김용철, 김용희, 김웅전, 김윤미, 김윤중, 김윤하, 김윤환, 김은경, 김은미, 김은숙, 김은정, 김은주, 김은형, 김의승, 김익현, 김인경, 김인규, 김인수, 김인숙, 김인옥, 김인화, 김일우, 김장수, 김정란, 김정숙, 김정순, 김정옥, 김정하, 김정현, 김정희, 김종길, 김종대, 김종성, 김종영, 김종원, 김종윤, 김종임, 김종학, 김주영, 김준, 김준형, 김준호, 김진숙, 김진순, 김진식, 김진아, 김진자, 김진팔, 김진희, 김창수, 김창식, 김창현, 김철수, 김춘달, 김춘자, 김태모, 김태운, 김택수, 김한울, 김한준, 김한준, 김현곤, 김현수, 김현옥, 김형근, 김혜경, 김홍렬, 김홍순, 김홍진, 김희경, 김희성, 김희순, 김희옥, 나승준, 나인준, 나편균, 남궁각, 남금숙, 남봉우, 남순애, 노경옥, 노덕영, 노아네스, 노애선, 노영례, 노영자, 노은숙, 노은주, 노희숙, 대명초특수학급, 도인록, 류관숙, 류동열, 류영미, 류재율, 류홍, 리주옥, 모상선, 목동균, 문창규, 민경식, 민경암, 민병학, 민선옥, 민영기, 박경인, 박관철, 박광천, 박광필, 박구자, 박근수, 박달영, 박동근, 박미나, 박미희, 박병삼, 박병택, 박복남, 박상래, 박상준, 박선용, 박선호, 박성규, 박성배, 박성연, 박송현, 박순주, 박승욱, 박승현, 박영숙, 박윤자, 박윤희, 박은숙, 박은정, 박응천, 박인자, 박정희, 박종찬, 박종희, 박주완, 박준성, 박지연, 박진옥, 박진홍, 박찬면, 박찬백, 박찬주, 박찬현, 박찬희, 박창규, 박창기, 박준지, 박해운, 박현미, 박현숙, 박혜경, 박호준, 박효식, 박희호, 방계순, 방성식, 방영자, 배승호, 배우재, 배주옥, 백길종, 백성기, 백승준, 백진기, 백창진, 변경봉, 변두균, 변혜숙, 복진을, 부석종, 서경자, 서광자, 서교분, 서교택, 서기련, 서나리, 서단아, 서명옥, 서명원, 서성환, 서장원, 서정석, 서정용, 서지연, 선우환호, 성모의기사수녀회, 성상업, 성정모, 성희창, 소성섭, 손경미, 손동래, 손석재, 손선일, 손세욱, 손은숙, 손형기, 손형옥, 송기성, 송명옥, 송수일, 송영익, 송재훈, 송철영, 송춘실, 수상덕, 승병희, 신경식, 신미숙, 신미순, 신상오, 신숙희, 신순자, 신순현, 신연화, 신이분, 신정자, 신정호, 신진호, 신항순, 신형모, 신호철, 신효신, 심명옥, 심복섭, 심형석, 안남순, 안동숙, 안명순, 안문숙, 안미훈, 안상길, 안성호, 안소영, 안종희, 안주영, 양미경, 양수천, 양승란, 양옥석, 양인일, 양태식, 어남선, 어원, 엄기성, 엄춘실, 여운석, 연산중 특수학급, 연제혁, 염규홍, 염윤자, 염주란, 오경순, 오광순, 오명선, 오명화, 오미화, 오석현, 오숙자, 오연임, 오육환, 오웅수, 오일교, 오점숙, 오종오, 오주영, 오주은, 오준식, 오준이, 오한나, 오현경, 오혜원, 오화진, 은유진, 용명임, 우연옥, 우인자, 우전, 원용희, 원재화, 원종철 월드카센터, 유경희, 유기화, 유명기, 유명희, 유미, 유부림, 유선희, 유양호, 유열호, 유영구, 유영민, 유영철, 유은두, 유이선, 유인운, 유재현, 유향옥, 유혜영, 육근홍, 운경숙, 운길종, 운문경, 운병렬, 운석권, 운석남, 윤수자, 윤순자, 윤여진, 윤여철, 윤영광, 윤영휘, 윤옥자, 윤옥희, 윤운규, 윤은화, 윤재명, 윤정순, 윤종대, 윤진영, 윤한섭, 이건우, 이경미, 이경순, 이경자, 이광수, 이광직, 이규옥, 이근표, 이기남, 이기상, 이기석, 이기학, 이다리야, 이덕례, 이도영, 이동근, 이동효, 이명수, 이명자, 이민옥, 이민표, 이범림, 이병권, 이병진, 이복규, 이복이, 이상범, 이상영, 이상숙, 이상은, 이선량, 이성광, 이성민, 이성순, 이성원, 이성하, 이세혁, 이수경, 이수형, 이숙영, 이숙희, 이순조, 이순호, 이승남, 이승미, 이승욱, 이승훈, 이연재, 이연호, 이연희, 이영남, 이영란, 이영미, 이영숙, 이영옥, 이영임, 이영주, 이영희, 이용구, 이용규, 이용남, 이용성, 이용훈, 이우연, 이우영, 이웅호, 이원길, 이원향, 이유미, 이윤복, 이은선, 이은수, 이은진, 이은칠, 이인엽, 이장, 이장현, 이장희, 이재순, 이재연, 이전규, 이정구, 이정규, 이정미, 이정범, 이정자, 이준오, 이종규, 이종숙, 이종옥, 이주경, 이준복, 이진경, 이진의, 이진형, 이창수, 이충근, 이치자, 이택주, 이해운, 이향래, 이현선, 이현수, 이현수, 이현주, 이현희, 이혜숙, 이혜영, 이혜옥, 이혜진, 이홍천, 이화연, 이홍재, 이희경, 익명, 임경수, 임금옥, 임덕순, 임문화, 임미자, 임민준, 임민찬, 임범택, 임상수, 임세영, 임송옥, 임재신, 임찬옥, 임향빈, 장경수, 장기욱, 장남미, 장동수, 장명호, 장미화, 장선옥, 장순자, 장영희, 장우상, 장원재, 장윤선, 장정숙, 장진영, 장진희, 장한순, 장한업, 전경애, 전광운, 전남숙,

전선아, 전연인, 전영희, 전용달, 전창선, 정경순, 정경애, 정계순, 정병호, 정보옥, 정상수, 정석환, 정선미, 정선수, 정선주, 정소영, 정연수, 정영진, 정육진, 정원진, 정유진, 정은남, 정은석, 정은선, 정은옥, 정은주, 정재구, 정지풍, 정지현, 정창수, 정충희, 정태형, 정하양, 정혜숙, 정화숙, 정환림, 정훈경, 조경숙, 조규정, 조기호, 조남욱, 조마르타, 조문기, 조미숙, 조성대, 조성혁, 조숙자, 조숙희, 조영갑, 조영록, 조영주, 조영홍, 조옥분, 조용훈, 조유성, 조진, 조한수, 조현, 주면탁, 지영옥, 지영철, 성모의마을직원상조회, 진규호, 진용민, 진은영, 차미정, 차영철, 차옥남, 차은, 차인자, 채경란, 채미자, 채병석, 최경복, 최관집, 최금옥, 최난숙, 최덕화, 최명희, 최문자, 최백석, 최범순, 최병립, 최봉순, 최상례, 최상윤, 최상태, 최선, 최성근, 최순옥, 최영범, 최영은, 최영훈, 최우연, 최윤정, 최은자, 최인규, 최인영, 최인향, 최재원, 최정길, 최주희, 최풍길, 최해경, 최혜수, 최혜연, 최효인, 최희례, 추현진, 편재영, 하만웅, 하무순, 하영호, 하옥경, 하재영, 하태천, 한강섭, 한경희, 한남수, 한동림, 한명화, 한상선, 한상조, 한선화, 한원규, 한치권, 하신자, 허근근, 현현섭, 호승환, 흥건표, 흥광표, 흥근선, 흥명숙, 흥성옥, 흥순옥, 흥승무, 흥영옥, 흥영일, 흥예인, 흥용의, 흥윤정, 흥은실, 황규성, 황규홍, 황명구, 황선철, 황인옥, 황태성, 황현숙

물품후원

(주)대명실업, (주)애경, KT, LH한국토지공사(대전충남지역 본부), 갈매못성지, 강영미, 고은카리타스푸드뱅크, 궁골식품, 권영학가족, 김도희, 김동민가족, 김명례가족, 김민자, 김부식 가족, 김양숙, 김연희, 김영교신부님, 김영부, 김한상가족, 김정순, 김원혁가족, 김종필, 나기무, 남금숙, 노경민가족, 논산푸드뱅크, 논산시의회, 대림농장, 대전내동성당, 대전카리타스, 대형환경, 도룡동성당, 동금성옛날짜장, 동방고등학교, 동신주유소, 메리워드원드양상불, 목련라이온스, 박명자, 박미란가족, 박서룡가족, 박성수가족, 박재성가족, 박종덕가족, 박찬빈, 박현하, 배미희(우리황토), 배재대학교, 백무숙, 백영이, 변평섭, 부여성당소년래지오, 삼성화재RC나누미, 상월건강원, 상월농협(가스), 서경준, 성낙순가족, 성동식품, 성모의마을카페, 성심악국(대전), 성연식품, 손선미가족, 송찬희가족, 송촌동성당, 신도안종합상사, 신순자, 신옥자, 싱싱유통, 쌀집아줌마, 윤광식가족, 양훈섭가족, 엘리사벳마매님, 오개수, 오우석가족, 오화진, 유시훈, 윤권기, 윤문경, 윤성준, 윤흥식, 율리アナ자매님, 이도련가족, 이동기가족, 이마리아자매님, 이소영, 이수민가족이수호가족, 이원선가족, 이재승, 이정린, 이지현가족, 이클라우디아수녀님, 이현희, 이해진, 익명, 임세영, 장재희가족, 장태산정육점, 적십자논산지점, 정규연가족, 정규자, 정상민가족, 정유진, 정인선, 정창근, 정태형, 정혜숙, 제국의아이들, 조경연, 조성모(구민지), 조정연, 지원연대, 차옥남, 천양원, 최상태, 충남도청, KEB하나은행논산지점, 한마음회, 한사랑라이온스, 현대수산, 황선혜, 황인범

※ 알림 – 혹시 명단에서 누락되었거나 표기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런 물품이 필요합니다!!"

| 생필품 |

세제, 고무장갑, 휴지, 성인용기저귀, 물티슈 등

| 식 품 |

과일 및 간식류

| 그 외 |

냉장고, TV, 청소기 등 생활가전제품

봉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6년 7월 1일 ~ 2016년 12월 31일 까지)

정기자원봉사팀

가양동성당, 갈마동성당, 계룡대근무지원단(지원연대, 현병대대), 계룡회, 공주중동성당, 궁동성당, 김종필가족, 노은동성당, 대교동성당, 대전내동성당, 대형환경, 도룡동성당, 박봉석가족, 반석동성당, 삼성화재RC나누미, 삼위일체성당, 송인철가족, 이운서가족, 안제성가족, 정양원, 탁구사랑, 한국타이어, 한국도지주택공사(대전충남지역단), 해군정보화기획실, 학습봉사(노은동성당), 흥예인가족

그 외봉사해주신 분들

72회정대, 공주신관동성당, 광석중학교, 대전교구끄르실료여성158차봉사단, 노경민가족, 노성중21기동창회, 논계금청년회, 대전교구청년성서, 동방고등학교, 덕명동성당, 만년동성당, 바다사랑봉사회, 부여성당, 상월면바르게살기운동본부, 상월농가주부회, 송촌동성당, 이명숙가족, 연산중학교, 연세대키비단, 육군제2경비단, 천안우체국물류지원단, 충남공무원교육원, 카리타스유통, 충남대학교 '루카', 충청대학교간호학과, 한사랑라이온스, 해군군악의장대, 한남하이텍

이·미용봉사

이발봉사(명성이용원, 신상이용원, 형제이용원), 이명숙가족, 전민동성당(이금언외)

의료봉사

연산치과, 성모병원재활의학과

공연봉사

메리워드원드양상불, 배재대학교실용음악과, 대전가톨릭소년소녀합창단, 반곡초등학교, 아무르합주단

미싱봉사

이정, 진영희, 김정순, 염병숙, 이기화



후원가입신청안내 (한사람 더 후원회원으로 이끌어주세요!)

전화 또는 성모의마을 홈페이지(www.smo.or.kr)를 통해 후원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신청서, 전화, 지로용지를 이용해 주시고 가입 후에는 회원증과 함께 소식지를 보내드립니다.
또한 회원이 되시면 원하시는 분들께는 연말에 소득공제용 영수증을 보내드립니다.



후원금 자동이체 신청방법에 대하여

은행에 가서 직접 등록하는 방법

아래 계좌 중 자동이체가 편리한 금융기관을 선택하신 후 본인의 통장, 도장, 신분증 등을 지참하시고
은행에 가셔서 자동이체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모의마을에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등록 및 변경시 참고)

폰뱅킹을 이용하는 방법

폰뱅킹을 이용하시는 회원님들께서는 해당 은행 대표전화(아래)로 전화하시어 상담원을 연결하여 본
인 확인 후 아래의 계좌번호 중 자동이체 받을 계좌번호를 말씀하시면 등록이 됩니다.



후원계좌번호

법인후원계좌번호

- 농 협 461058-51-011210 (대표전화 : 1588-2100)
- 국민은행 457-25-0005-696 (대표전화 : 1588-9999)
- 하나은행 663-113251-00105 (대표전화 : 1588-1111)
- 신한은행 100-009-187570 (대표전화 : 1577-8000)

- 예금주 -
성모의마을

시설후원계좌번호

- 농 협 351-0762-7852-13 (대표전화 : 1577-2100)



후원금수입지출현황 (2016년 07월 01일 ~ 2016년 12월 31일 까지)

(단위 : 천원)

수 입 내 역		지 출 내 역	
과 목 명	금 액	과 목 명	금 액
이월금	143,196	급 여	30,003
지정후원금	47,580	제 수 당	5,655
비지정후원금	109,026	퇴직금및퇴직적립금	2,545
		사회보험부담비	1,745
		기타후생경비	8,209
		기관운영비	673
		회 의 비	1,445
		여 비	548
		수용비및수수료	12,754
		공공요금	9,331
		제세공과금	2,041
		시 설 비	22,606
		자산취득비	8,755
		시설장비유지비	1,472
		연료비	338
합 계	299,802	합 계	108,120

콜베 성인의 영성을 살아가는 성모의기사수녀회에 초대합니다.



[창립]

본 회는 1917년에 로마에서 원죄없으신 성모의 기사회(Militia Immaculatae:M.I)를 설립하신 성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콜베의 유지를 받은 미에치슬라오 미로하나 신부에 의해 1949년 일본 나가사끼에서 창립되어 M.I의 정신으로 사는 수녀회입니다.

[정신]

성 막시밀리아노 콜베의 정신에 따라서 원죄없으신 성모님께 모든 것을 봉헌하고 성모님에 의해, 성모님과 함께, 성모님을 통하여 예수성심의 왕국을 전파하기 위해 기도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사도직]

일본, 폴란드, 한국에서 M.I의 정신으로 사회복지, 의료, 교육, 출판사업과 한국에서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성모의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소자모임〉 매월 넷째 주일 오후 2시
 문의 : 041-732-3583(수녀원) 041-732-2085,0889(사무실)
 성소담당자 : 010-3399-3583
 주소 : 충남 논산시 상월면 선비로1166(대촌리 122-1) 우)32907
 ※ 성소상담 수시 가능
 홈페이지 _ www.fsomik.co.kr

성모의마을 찾아 오시는 길

》 서울 수도권에서 찾아올 경우

천안~논산간고속도로 → 정안IC<22.2Km>
 약40분 소요 → 공주·논산방향(국도23번)
 → 유평교차로 신원사방향(지방도로697)
 → 연산방향(지방도로697번) → 대명초등학교
 (1.5Km) → 성모의마을

》 대전 영남권에서 찾아올 경우

서대전IC<40Km> → 대전~논산간(국도1호선)
 → 연산검문소(우회전), 연산삼거리에서(12Km)
 → 상월방면(697번 지방도)
 → 성모의마을

사랑입니다.

이 세상을 봄날의 햇살을
보겠습니다...

메이리에 계제된 사전은 본인 및 보호자의 동의를 얻었습니다.